

## I. 출장 개요

가. 출장전명: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 및 관련 작업반 회의 참석

### 나. 출장 목적

- OECD 농촌지역정책작업반 회의 참석 및 주요 국가의 농촌정책 추진 동향 파악
  - 전반적인 정책 현황 및 농촌의 서비스 전달 관련 정책 등 파악
  - 국가별·지역별 농촌 여건 비교 및 관련 연구 작업 동향 분석
- 국가별 지역정책 현황 및 녹색성장전략 등의 추진 동향

다. 출장자: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 성주인 전문연구원

라. 출장지역: 프랑스 파리(OECD 본부)

마. 출장기간: 11월 29일(일) - 12월 5일(토), 5박7일

### 바. 주요 일정

| 날 짜                  | 주요 일정                 | 주요 업무 내용                                               |
|----------------------|-----------------------|--------------------------------------------------------|
| 11.29(일)             | 인천 → 파리               | 출발 및 도착                                                |
| 11.30(월)             | 제18차 지표작업반 회의 참석      | - OECD 국가의 지역 여건 분석을 위한 지표 설정 사례 검토 및 토론               |
| 12.1(화)              | 제11차 농촌지역정책 작업반 회의 참석 | - 국가별 농촌지역정책 추진 현황 비교 및 농촌 서비스 전달 등 토론                 |
| 12.2(수)              | OECD 지역정책 심포지엄 참석     | - 각국의 지역정책 현황 비교 및 혁신·녹색성장 전략 추진 동향 파악                 |
| 12.3(목)              | 제22차 지역발전정책위원회 회의 참석  | - 지역혁신전략 및 국가별 지역정책 토론<br>- OECD 발간 지역정책·농촌정책 관련 자료 수집 |
| 12.4(금)<br>- 12.5(토) | 파리 → 인천               | 출발 및 도착                                                |

## II. 주요 회의 내용

---

### 1. 회의 의제

- 제18차 지표작업반: 지역적 분석, 공공투자와 서비스 우선사업, 지역적 정의 및 측정, OECD 지역적 데이터베이스 및 통계 등 발표 및 토론
- 제11차 농촌지역정책 작업반: 농촌정책전략 및 방향, OECD 농촌정책 리뷰(캐나다 퀘벡주), 농촌의 서비스 전달 방안 등 토의
- 지역정책 TDPC 심포지움: 지역정책의 균형과 효율성, 혁신과 녹색성장 전략문제, 지역정책의 모니터링, 후속조치 및 이행 등 토의
- 제22차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 회의: 지역 혁신과 녹색성장(혁신전략 및 혁신사례 등), 지역정책 평가(스웨덴, 이탈리아 사례) 등 논의

### 2. 주요 회의 내용

#### 가. 제18차 지표작업반 회의(11.30)

##### □ 개막연설(Dev Virdee 작업반 의장, Mario Pezzini, GOV 국장)

- GOV 국장이 새로운 출판물 “OECD Regional Outlook”을 위한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OECD Regions at a Glance” 개요에 대해 토론
- OECD 사무국에서는 OECD-EU 연구프로젝트 “지역을 위한 새로운 혁신정책(지역 수준에서 혁신정책과 혁신 관련 지출의 효율성 개선)”의 지원을 위한 데이터와 지표에 대한 초고를 제시
  - 지역혁신체제의 측정에 대한 기존 지식 평가
  - 지역혁신 지표의 탐색적으로 記述的 분석 제공
  - 정책적 결론과 함께 통계분석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역의 분류하는 새로운 방법 제안

- 작업반 의장은 이번 회의의 어젠다에 대해 언급하고, 지역지표작업반의 미래 활동에 대한 몇 가지 합의에 대해 논의

## □ 제1세션 : 지역트렌드의 분석(3건 발표)

- 첫 번째, “증가하는 낙후지역 프로젝트(**Growing lagging regions**)”에 대하여 사무국 주관으로 OECD 지역들에서 성장의 주요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일련의 프로젝트 수행 결과 발표

※ 본 프로젝트는 “지역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라는 간행물로 이어짐

- 성장하는 낙후지역 프로젝트는 낙후지역 중 성장하는 곳과 그렇지 못한 지역의 각각의 공통 요소들을 확인함으로써 국가 표준을 따라잡기 위한 낙후지역 원조의 성공 요인을 조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이 프로젝트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경제 순환과정에서 분석적 방법을 결합하여 진행

### < 터키, 네덜란드, 이태리, 영국 등 각국 대표 토론 >

- 터키의 경우 2001년 이후로는 비교 가능한 가용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문제
- 1, 2단계 분석에서 생산구조를 반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
- 또한, 3단계에서 클러스터 등에 대한 사례연구 가능성 검토
- 기반시설에서 도로만이 아니라 ICT 등의 서비스 접근성 지표 고려가 필요하며, 고등교육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
- 소수의 지역만 분포하는 일부 국가(예: 2개 지역으로만 분류된 아일랜드 등)에서는 여기에서 적용한 분석 방법이 적절치 않을 수 있음
- 일하는 곳과 거주하는 곳이 다른 대도시 통근자의 소득 집계 또는 은퇴자의 연금소득 등 집계 방법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

- 두 번째 발표인 영국 작업팀에 의한 “농촌 도시 생산성- 영국 사례(**Rural urban productivity: the case of English regions**)”에서는 농촌과 도시 지역에서 노동 생산성을 추정하기 위한 연구를 소개
- 총부가가치를 부가가치와 고용을 이용하여 디스트릭트 수준으로 분해한

다음 이것을 다시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으로 재집계하는 방식 사용

- ※ 본 연구 결과는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에서 하위 지역 생산성 추정 - 영국지역을 사례로”라는 제목으로 영국 국가통계청에서 출간
- 대표단은 TL3 지역 보다 더 작은 지역에 대한 총부가가치와 노동생산성을 추정하기 위한 이 방법의 응용 가능성에 대해 토론

○ 세 번째, 포르투갈 대표단은 “지속가능한 발전 - 포르투갈 지역의 복합 지수” 연구 결과 소개

- ※ 복합 지수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
  - 경제적 경쟁력, 사회적 통합, 환경적 요소
- 지역발전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회적, 환경적 지표를 고려해야 함을 강조

< 터키, 이태리 등의 토론 >

- 정책 결정에 대한 활용성 문제(예를 들어 부처간 협력 문제에 대한 시사점 제공 등)
- 요인분석(factor analysis) 등의 방법 활용 가능성 검토 필요
- 향후 사회적 통합(cohesion)과 경쟁력(competitiveness) 지표간 상관관계 등에 대해서도 검토 필요

□ 제2세션: 지역에서 공공투자의 우선순위

○ “지역에 대한 공공 투자에서 우선순위(Prioritization of public investments in regions: What evidence from data?)” 발표 및 토론

- OECD 사무국에서는 OECD 국가들을 샘플로 하여 지역에서 공공 투자에 대한 정보의 이용 가능성에 대한 리뷰를 하고 있으며, 17차 지역지표 작업반 회의에서 논의된 예비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에서 공공투자의 국제 비교를 위한 분석적 틀을 제시하고,
- ‘09.11.19 서울에서 OECD와 한국 조세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 전략의 지역적 우선순위: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라는 전문가 모임의 결과를 보고
- 이 프레젠테이션은 연구에 더 많은 국가들을 포함시킬 가능성에 대하여 각국 대표단들에게 토론의 기초역할을 함

○ 유럽 위원회의 지역지출 리뷰(EC review of regional expenditure) 발표 및 토론

- 유럽위원회는 EC와 ESTAT(유럽연합통계청)가 수행한 유럽연합 국가들에서 지역 지출을 리뷰하고, 유럽연합 국가로부터 중기적으로 공식데이터의 이용 가능성 토의

○ 제2세션에서 언급된 주요한 이슈

-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역 단위의 공공투자에 관한 데이터가 제한되어 있으며, 구축되어 있는 경우도 대개 광역지역 위주여서 도시와 농촌간 분석이 불가능한 점
- 공공투자에 대한 집계 방법이나 자본지출에 대한 정의가 국가마다 달라 엄밀하게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

< 영국, 이탈리아, 브라질, 네덜란드, 프랑스 등 각국 대표 토론 >

-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지역 단위에 공공투자를 시행하는 영국 같은 국가와 주정부의 자율성이 강한 미국 같은 국가를 동일한 지표로 비교하는 문제
-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투자 효율성을 평가하는 작업의 어려움
- 지역계정과 국가계정의 차이 등 방법론의 문제
- 비교 가능한 데이터 산출 작업에 OECD가 기여한 역할 등

□ 제3세션: 지역을 정의하고 측정하기

○ OECD의 지역 유형구분 정교화(Refinement of the OECD regional typology: the economic performance of remote rural regions) 작업에 관한 발표와 토론

- 본 논문은 OECD의 세가지 유형의 지역 분류(predominantly rural, intermediate, urban regions)를 보다 정교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 인구가 밀집된 센터로의 접근성의 측정을 통해 거리에 따라 농촌지역들 간의 구분을 위해 도입
- 또한, 동일한 방법론이 EC에 의해 유럽지역에 적용되었고, OECD에 의해 캐나다, 미국, 멕시코까지 확대되었음.

- 대표단은 새로운 OECD의 지역분류 유형으로서 그 방법과 채택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

< 스위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캐나다, 오스트리아, 영국 등 각국 대표 토론 >

- 중심도시에 대한 인구 기준을 국가별로 달리 설정하는 문제
- 보다 용이한 유형화 방법 필요성 및 유형화 기준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 문제
- 접근성 정도를 구분하는 기준(예: 자동차 60분 거리)에 대해 국가별 여건에 따라 적실성을 검토할 필요성

○ “세계의 메트로 지역을 정의하고 측정하기(Defining and measuring world-metro regions: issues and proposed methodology)”에 대한 발표와 토론

- 본 논문은 OECD와 영국 국가통계사무소, 광역 런던정부(Greater London Authority)의 공동 주최로 9.29~9.30 런던에서 열린 전문가 모임의 결과임
- 회의에서는 국가들의 적절한 파라미터(핵심지역의 정의, 건축 블록의 규모 등)를 고려하는 국제 비교를 위한 대도시지역 정의를 위한 공통의 방법론을 논의

※ 이 방법론은 감도분석(sensitivity analysis)이 제한된 몇몇 도시에서 수행되었음

- 회의 중에 대도시지역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들의 셋트에 대한 논의와 다른 도시를 위한 가능한 추정 기법의 제안이 있었으며,
- 대표단은 제안된 방법론과 메트로 리전의 경제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접근의 실행가능성을 언급

○ “대도시지역: OECD와 EC의 정의와 조화를 위하여 (Metropolitan regions: towards a harmonisation of the OECD and European Commission definitions)”에 대한 발표 및 토론

- OECD 사무국과 유럽위원회가 공동으로 준비한 이 발표는 현재 EU와 OECD에서 사용하고 있는 NUTS3 지역과 TL3 지역을 바탕으로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정의를 조화시키기 위한 제안을 담고 있음

## □ 제4세션: 데이터 수집 및 보급

- “이민과 지역발전: 프로젝트 제안 (Migr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a project proposal)”에 관한 논의
  - 16차, 17차 지역지표작업반 미팅에서 5개국이 OECD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이민자 측정을 더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생한 토론을 유발한 이민과 국제이민에 대한 연구를 제안
  - “Migr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a project proposal” 문건은 OECD의 고용, 노동 및 사회문제국과 공동으로 수행한 거주지역의 국제이민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제시
  - 이 데이터 수집의 결과는 OECD 국가들에서 최초로 이민의 지역적 측면에 대한 기술을 가능하게 하며,
  - 이 문건에서 국제이민에 대한 지역지표 작업반 대표를 위한 데이터 수집을 제안함
  - 마지막으로 이민과 지역발전에 관련된 일련의 정책적 문제들이 논의됨
- OECD 지역데이터베이스 자료수집 2009(OECD Regional database data collection 2009)에 대한 논의
  - OECD 사무국에서는 지역 데이터 연례 수집 결과를 소개하고, 새롭게 이용 가능한 지표에 대한 논의 및 대표단에게 접근이 가능하고 참여가 활발한 국가들의 지역 통계 수집에 대한 정보를 제공
- OECD 익스플로러의 미래 개선(Future improvements in OECD explorer)을 위한 논의
  - OECD 사무국에서 OECD 웹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한 지역통계를 위한 웹 기반형 지도화 도구 OECD explorer의 새로운 특징을 소개
  - 특히 사무국은 대표단들과 지역정보를 분석하고 소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OECD explorer 이용을 개선하기 위한 가능한 방법을 논의
- 주요 토론 내용
  - 이민과 지역발전에 대한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은 매우 야심찬 계획. 그러

나 각 나라마다 데이터 이용 가능성의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국의 협조 필요

- OECD 지역 통계를 explorer와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인구이동과 인구구조 변화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 필요
- 이태리, 독일, 노르웨이 등에서 향후 진행될 사례조사를 위한 지원 의향 밝힘

## 나. 제11차 농촌지역정책 작업반 회의(12.1)

### □ 도입 세션

- 회의 개최 발언(농촌지역정책 작업반 의장 R. Wakeford)
  - 옵저버 참가국(남아공, 브라질 등) 소개
  - 농촌지역정책 작업반 활동의 의의 소개
  - 제11차 작업반 회의 안건 및 2008년의 제10차 회의 결과 요약자료에 대한 동의
- 사무국의 대표단 선출 및 활동 보고
  - 제10차 회의 때 선출된 사무국 대표단 중 3인의 사퇴에 따라 추천 받은 2인의 후보(핀란드, 미국)를 대표단으로 새롭게 선출하고 동의
  - 2009년 3월 개최된 장관급 회담의 성과 보고 및 2009년 10월 캐나다 퀘벡에서 열린 농촌정책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에 대한 보고
- OECD 공공거버넌스 및 지역발전국(GOV) 부국장 발언
  - 경제구조 변화 등 최근의 상황에서 OECD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모색할 필요성 제기
  - 특히 경제 회복을 비롯한 지구적 이슈 다룰 2010년의 G20 회담과 관련하여 노동시장, 경제구조 등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에 OECD가 지니고 있는 강점 활용 필요
  - 장소 기반의 접근이 요구되는 공공투자에서 상이한 정책 부문들 간의 조정(예를 들어 인적자원,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부문) 문제에 대해 OECD가 강점을 지니며, 이런 이유로 향후 G20 회담 이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

- 코펜하겐회의의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책과 그로 인한 영향이 지역에 따라 다를 것인바, 물, 자연자원, 바이오매스 등 농촌의 가치가 어떠한 기여를 할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
- OECD 비회원국(특히 중국,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남아공 등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과의 협력 필요성이 큼. 중국의 농촌정책 리뷰 작업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남아공의 작업 등에서도 OECD가 기여할 수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
- 지역정책위원회(TDPC)와 OECD의 GOV 소속 다른 위원회 등과의 협력 모색 필요성

○ 농촌지역정책 작업반의 주요 이슈 제기(작업반 의장)

- 새로운 농촌정책 패러다임(New Rural Paradigm)에 대한 강조와 중국, 이태리 등의 농촌정책 리뷰를 통한 성과
- 올해 10월의 웨벡 회의에서 미래 농촌의 아젠더에 대해 논의
- 2006년 새로운 농촌정책 패러다임 보고서가 출간된 이래 그 속에 담긴 메시지가 여러 국가에서 수용되어왔으며, 향후에도 여기에 담긴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국가들에 대해 지원할 필요 있음
- 작업반을 통해 매우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새로운 농촌정책 패러다임이 앞으로 많은 국가에서 진전되리라 기대
- 앞으로는 미래 농촌의 모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예컨대 20년 후 농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며, 앞으로 어떠한 요인들이 농촌의 변화를 이끌 것인지 인구 변화, 인구이동, 고령화, 경제 변화, IT 등을 통한 도농연계의 기회와 위협 등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
- 미래 농촌이 특히 녹색성장전략에 대해 지니는 잠재력에 주목해야 하며, 자연자원, 생태계 관련 서비스, 문화자산 등 모든 종류의 농촌의 산물(rural product)의 중요성 강조
- 이와 같은 농촌의 'green potential' → 형평, 효율 두 가지 측면에서의 서비스 전달과도 연관되는 문제임을 인식할 필요
- Rural Proofing 등의 정책이 이태리 등에서도 농촌정책리뷰를 통해 검토되는 등 성과를 거둠. 이처럼 농촌에서의 다양한 움직임들을 어떻게 국가간에 비교할 것이며, 각국의 지방정부는 각기 농촌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가 등의 문제 검토 필요

- 국가간 교훈을 얻는 방안이 무엇이며, OECD 국가간에 어떻게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각국에 기여할 것인지 논의해야 함

## □ 농촌정책 패러다임 변화: 퀘벡 사례 및 OECD 국가의 농촌정책

### ○ 새로운 농촌정책 패러다임(New Rural Paradigm; NRP) 검토

- 농촌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자산(local assets)에 대한 가치 부여, 새로운 자원의 개발 등을 강조
- 농업 부문만이 아닌 다양한 농촌경제 부문 대상
- 기존의 보조금 지원 정책에서 투자 위주 방식으로 정책 변화
- 초국가, 국가, 지역, 로컬 등 상이한 레벨의 정부 및 지방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공공, 민간, NGO 등) 모두가 관련

### ○ 퀘벡의 농촌 여건 및 핵심적인 농촌정책 이슈 논의

- 캐나다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도농 격차가 심화되는 추세이지만, 퀘벡주는 상대적으로 그러한 경향이 덜함
- 단, 퀘벡 내에서도 도시 인근 농촌이 성장하고 전형적인 농촌은 쇠퇴가 지속되는 등 지역간 발전 격차가 발생
- 농촌 커뮤니티에 대한 역량 형성이 경제발전의 선결조건이며, 숙련된 노동력을 확보해야 함
- 농업용 토지가 도시 확산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보전해야 하지만, 그 경우 경제발전이 위축될 수 있어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함
- 연방정부, 주정부, 지자체 등 다양한 정부 레벨 사이에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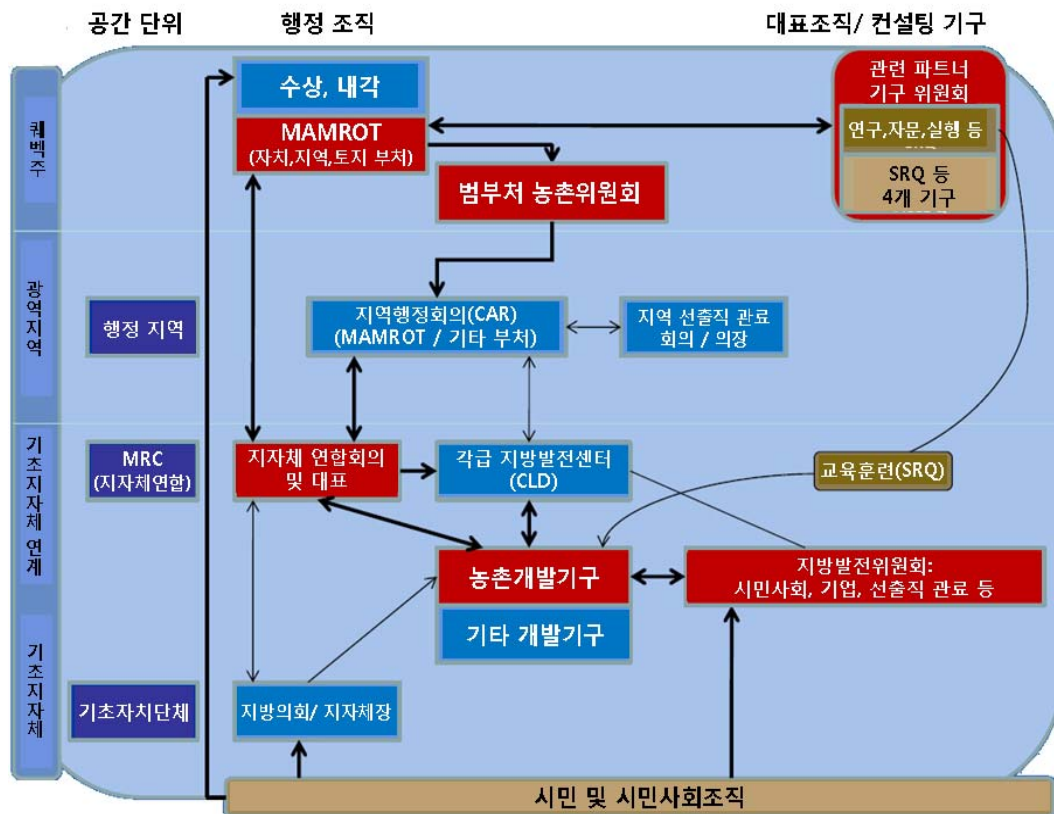
### < 퀘벡주의 농촌정책 추진체계 사례 >

- OECD의 새로운 농촌정책 패러다임(New Rural Paradigm)에 기반을 둔 국가 차원의 농촌정책(Nation Policy on Rurality; PNR)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효과적인 수평적·수직적 거버넌스와 추진체계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둠
- 지역정책을 주관하는 부처인 MAMROT이 주관하여 범정부적인 농촌위원회가 정책의 기획을 담당하며, 지역 차원에서 이에 대응하는 다양한 조직

을 갖추고 있음

- 특히 지방 차원에서는 지자체 간 연계·협력 단위의 정책 추진이 강조되며, 민간 부문과 사회단체 등의 참여구조를 마련함
- 효과적인 자문, 연구, 모니터링 등을 위해 별도의 기구를 두어 정책 추진 과정을 지원

< 퀘벡주의 국가농촌정책(PNR) 추진체계 >



○ 이러한 퀘벡의 쟁점에 대해 정책 리뷰 보고서에서는 다음의 해법이 제기

- 지방 단위의 경제정책과 농촌정책을 통합 추진하며, 지자체 간 연계협력을 통한 광역 단위의 활동을 장려
- 농촌의 숙련 인력군을 지원하며, 쇠퇴하는 농촌 지역에 대한 지속 가능한 경제정책 추진과 통합적인 거버넌스
- 도농 연계 접근을 통한 도시 확산의 방지와 농촌의 가치있는 토지와 어메니티 보전

○ 퀘벡의 농촌정책 시사점에 대한 각국의 주요 토론 내용

-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상향식 접근 방식과 로컬 단위의 참여의 중요성, 혁신적인 인적 자원 육성, 농촌정책 추진 시 여러 부문의 조정과 수직적인 거버넌스 문제 등을 강조
- 한편 인구가 희박한 원격지역이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캐나다나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경우에는 소규모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과제가 특별히 중요하다는 점이 지적
- 농촌의 창업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 새로운 서비스 등 최근 중요하게 대두되는 기회들을 활용할 필요성
- 농촌의 어메니티 보전의 중요성에 대해 종합보고서에서 보다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음.
- 도농연계, 특히 인접 지역 간 연결이라는 쟁점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한 부분으로 강조할 필요

○ 퀘벡 사례에 대한 참가국들의 토론 내용을 종합한 사무국 관계자 및 작업반 의장의 의견 제시

- 사무국에서는 제기된 논의들을 종합하여 보다 광범위한 세 가지 농촌정책 목표로서 3E(efficiency, equity, environment) 간에 다양한 방식의 조화를 달성하는 방향에 대해 의견 제시
- 작업반 의장은 지역정책에 관한 12월1일 심포지엄의 주제에 대해 농촌정책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검토해보도록 문제 제기
  - 형평과 효율이라는 정책 목표에 대해 농촌정책이 기여할 부분
  - 혁신 및 녹색성장에서 농촌이 갖는 의미
  - 경제위기가 농촌 주체들 및 농촌정책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
  - 농촌정책 모니터링, 시행 등에서 동료국가들 간 리뷰 강화 방안

○ 그 밖에 그동안 진행된 농촌정책 리뷰 결과들을 종합하기 위한 방향과 향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농촌정책 이슈 등을 놓고 다음 내용으로 논의가 진행

- 농촌의 인구 구성 다양화에 따른 로컬 단위의 민주주의 장려와 기업가정신의 고양
- 녹색성장에서 농촌이 갖는 다양한 잠재력을 주목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것

이 중요함.

- 고품질 식품 생산, 맑은 물 제공과 물관리,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안보, 생태 관련 서비스(ecosystems services),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문화자산, 여가, 고령인구를 위한 환경 등
- 한국에서는 광역화 등의 추세에 따른 농촌의 변화와 도농연계 정책에 대한 검토 필요성, OECD 정책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농촌정책의 영역 확대의 중요성 등에 대해 논의

## □ 농촌의 공공서비스 전달 문제

- ‘혁신적인 서비스 전달을 위한 워크숍’(2009년 6월 영국 개최)의 주요 논의 내용에 대해 사무국에서 소개
  - 워크숍에서는 ‘혁신적인 서비스 전달의 기회와 도전’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디지털기술, 지역사회 서비스, 주거 등 세 가지 주제로 구분하여 사례조사와 토론을 진행하였음
- ‘농촌지역의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s in rural areas)를 주제로 한 워킹페이퍼 발표
  - 2009년 6월 워크숍의 성과를 바탕으로 농촌의 공공서비스 전달의 발전 방안을 발전시킨 워킹페이퍼를 발표
  - 보고서에서는 농촌의 공공서비스 문제와 전달체계의 혁신 필요성을 제시하고, 영국에서 시도된 몇 가지 서비스 전달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도출
  - 파트너십에 기반하여 공공과 민간, 자원 부문이 농촌의 제반 서비스를 공동 구상(co-design) 및 공동 전달(co-delivery)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양한 전달 방식 변화를 모색
    - 분산된 수요의 통합(aggregate demand)
    - 서비스를 전달할 거점 마련(colocate services)
    - 상이한 서비스를 병합(merge separate services)
    - 전달 방법의 변화(deliver differently)
    - 서비스 공급자의 변화(change provider)
    - 현대적 정보통신 활용(use modern communications)

- 이와 함께 농촌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농촌영향평가(rural lens)도 장려할 필요
- 농촌 서비스 전달 문제와 관련하여 참가국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들을 제시
  - 주로 영국 사례들에서 시사점과 과제를 도출하고 있으므로 각국의 경험을 보다 풍부하게 참고할 필요 있음
  - 경제위기와 함께 농촌의 서비스 공급 여건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서비스 허브를 구축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

## 다. 지역적 차원에서의 혁신 및 녹색성장 심포지엄(12.2)

### □ 개막연설(Mark Drabenscott 위원장)

- 지역정책에서 공간(space)적인 측면의 중요성 강조 및 세션소개
  - 지금까지 기술적인 어려움(analytic technique) 때문에 지역정책에서 공간적인 측면이 간과되어 왔으나 신경제(new economy)체제하에서는 반드시 공간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
  - 심포지엄 주제소개 : ‘형평과 성장의 양립’(제1세션), ‘녹색성장과 지역의 의의’(제2세션), ‘성장을 위한 재정정책’(제3세션), ‘정책지표와 성과의 연계’(제4세션)

### □ 제1세션: 상호보완적인 형평과 효율: 지역정책의 역할

- 기조발표: Fabrizio Barca(이태리 경제재정부 국장)
  - 과거 지역정책은 지역간 GDP 격차해소를 통하여 형평과 효율을 달성하는데 목표를 두었으나 형평과 효율은 상관계수가 낮음
  - 새로운 지역정책은 공평하고 참여적인 절차를 통해 모든 구성원이 적절한 혜택을 누리며 다원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사회적 포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실천력 및 제도적 변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개발정책(development policy)’이 필요함
  - 사회적 포용을 위한 개발정책은 물리적 개념이 아닌 포괄적인 개념의 ‘장

소(place)'에 기반을 두어야 함

- 장소에 기반을 둔 개발정책의 거버넌스는 1) 주체별 협약, 2) 실험성 및 공개성, 3) 고도의 성과주의에 입각해서 추진되어야 함

○ 주요 토론 내용

- 개발도상국입장에서는 가용자원이 많기 때문에 지역정책 목표로 효율을 설정하는 것은 타당한 목표이나 형평을 달성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

□ 제2세션: 혁신 및 녹색성장 전략을 위한 지역의 역할

○ 기조발표: Carlos Alvarez(칠레 Corfo사 부사장)

- 과거 경제개발정책은 낙후지역에 자원을 재배분하는 것에 치중하였으며 대기업 주도 및 고등교육기관의 역할에 의존하였음
- 지역경쟁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전략 및 지역리더십 장려, 지역의 핵심역량간 협업 촉진 및 녹색성장을 위한 자원발굴이 필요
- 혁신전략으로는 민간·공공·산업계 지도자들이 지역의 역량과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혁신전략이 필요
- 녹색성장전략은 자원, 환경, 에너지, 도시정책면에서 우리의 가용지식을 더욱 깊게 하며 따라서 지역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 짐

○ 주요 토론 내용

- 녹색성장은 결국 효율과 형평에 관한 문제로 귀결됨
- 다양한 거버넌스 환경에서 참여 주체간 수평적 거버넌스가 다소 비효율적인 면이 있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효과를 발휘함
- 혁신에 있어서 인적자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 제3세션: 경제위기가 지역정책에 미치는 영향

○ 기조발표 : Charles Fluharty(미국 농촌정책연구원 부원장)

- 최근 경제위기로 지방정부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중앙-지방 정부간 전략적 투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위기극복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역적 차원에서 지방정부에 재정을 지원하고는 있으나, 지방정부는 당면한 복지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하는 실정임
- 미국정부는 지역정책 평가, 전략적 지역계획 및 통합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무부내 예산 1억4천만불규모의 프로그램을 발족시켰으며, 살고 싶은 커뮤니티(The Livable Communities) 추진을 위한 법률안도 미 의회에 제출한 상태임
- 각 국 정부는 제1세션에서 제기된 형평과 효율 양 대 목표를 조화시켜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예견되는 대도시권과 비도시권간 공간적, 지리적, 정치적인 갈등의 해결이 중요함

#### □ 제4세션: 지역정책 모니터링 및 후속조치 : 상호검토의 강화

- 기조발표: Duarte Rodrigues(포르투갈 NSRF 부원장)
  - 상호검토의 장점: 집중토론을 통한 집단학습효과, 정책의 근거와 유효성을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부여, 개혁의 사전 점검, 이론적 토대의 기회제공, 후속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시발점
  - 상호검토의 과제: 사례연구를 탈피하여 국가간 상호비교 지향, 모니터링을 위한 국제기준 개발, 국토파급효과 같은 핵심이슈를 평가할 수 있는 수단 향상, 상호검토 및 모니터링 결과 전파

#### 라. 제22차 지역개발정책위원회(12.3)

#### □ 작업반 활동 결과 보고

- 도시정책작업반(반장 Adam Ostry) 결과 보고
  - '녹색도시 워크숍'(09. 6 라스팔마스) 결과보고 및 OECD 장관급회의 및 원탁전략회의('10.6) 안내
  - '10년 발간될 폴란드 및 한국도시정책연구가 도시경쟁력향상을 위한 모범 사례(best practice)를 발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임
- 농촌정책작업반(반장 Richard Wakeford) 결과 보고
  - OECD 농촌개발회의('09. 10 웨벡) 및 개최된 농업 및 농촌개발정책포럼



(‘09.11) 결과 보고

- 농촌지역에서의 공공서비스에 관한 진행상황 및 ‘혁신 서비스전달워크샵’(‘09.6) 결과 보고
- 진행 중인 농촌정책연구의 핵심 결과 보고

○ 국토지표작업반(반장 Dev Virdee) 결과 보고

- 도심과의 거리를 감안한 농촌지역 분류체계 세분화 작업의 진행 상황 보고
- 메트로 지역을 상호 비교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 제안

## □ OECD 혁신전략 발표 및 토론

○ 발표자

- Pier Carlo Padoan(OECD 사무차장)
- Miriam Koreen(OECD 혁신전략프로젝트 senior manager)

○ 혁신전략 발표내용

- 기후변화, 보건, 식량안전, 빈곤 등 시급한 문제에 대처하고, 강력한 지속 가능 성장 및 개발을 위한 혁신강화전략 소개

- (원칙1) 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은 모든 형태에 있어 혁신에 필요한 폭넓은 기술을 개발하고 습득하는 토대를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혁신적인 일터를 촉진하기 위해 고용규제가 효율적인 조직변화를 촉진하도록 확보
- (원칙2) 공공서비스의 전달 개선, 효율성과 범위 및 형평성을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모든 정부차원에서 공공부문의 혁신을 촉진
- (원칙3) 체계적 조건들이 건전하고, 혁신에 기여하는 상호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확보
- (원칙4) 역동적 사업 분야, 건전한 위험감수 문화 및 창조적 활동을 촉진
- (원칙5) 효과적인 공공연구 서비스에 충분한 투자 제공 및 연구소 거버넌스 개선
- (원칙6) 재정시장이 순기능 하도록 촉진하고 신규 회사 특히, 초기 혁신단계를 위하여 재정지원이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혁신을 위한 민간자금을 동원
- (원칙7) 혁신을 지원하는 신뢰할만한 지식 인프라를 적정유지 하고, 네트워크 개방 및 시장 경쟁을 돕는 규제체계를 수반
- (원칙8) 지식창조 및 확산이 가능하도록 지식의 흐름을 조성하고 네트워크 및 시장개발 촉진
- (원칙9) 혁신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 메카니즘 개발을 포함한 국제적 과학기술 협력 및 이전 개선
- (원칙10) 세계적인 도전에 대처하는 탄력성과 인센티브를 위한 안정적인 정책 패러다임 조성 및 비용효과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기술개발 장려
- (원칙11) 혁신을 개발의 수단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현대적 기술에 대한 용이한 접근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에서의 혁신토대를 강화하고 창조적인 경제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기업가 정신의 함양

#### < 프랑스 대표 토론 >

- 효율적인 혁신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수평적, 수직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 특히 프랑스는 아직도 분권화가 진행 중이므로 수평적, 수직적 거버넌스의 의의가 더욱 크다고 강조

## □ 스페인(카탈루냐) 지역혁신 사례 발표 및 토론

### ○ 주요 발표 내용

- 카탈루냐주는 인구 7백만, GDP 규모는 2천4십억 유로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
- 최근 대규모 이민유입으로 노동인구는 증가하였으나, 1인당 노동생산성은 OECD 평균에 미달하여 민관 파트너십 강화, R&D 및 지식이전체계 강화 등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 및 혁신역량 강화 등의 과제를 안고 있음
- 카탈루냐주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

#### ① EU와의 R&D 협업강화

- 성과: EU Research Framework Program에서 지원하는 스페인 연구기금중 23% 확보

#### ② 향후 몇 년간 추진할 사업들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

#### ③ 우선순위에 따라 지역특화 산업을 선정하고 클러스터 및 지역혁신체계 추진

#### ④ 기업에 대한 합리적 지원체계 수립

#### ⑤ 첨단기술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 카탈루냐주 혁신정책의 시사점

#### ① R&D에서는 지역적 협업이 중요

#### ② R&D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거버넌스의 단순화가 중요

### ○ 이태리 대표의 지정 토론

- 내부적 거버넌스 개선방식으로는 부서 자체를 통합하는 hard 방식과 소관 업무를 통합하는 soft 방식이 있음
- 상위 레벨 거버넌스 개선방식으로는 지역차원에서는 수평적 협업, EU 또는 국가내에서는 수직적 협업이 있을 수 있음
- 정책개선방안으로는 업무 단순화, 우선순위 부여 및 전문화, 이해관계자 참여 및 협상, 평가 및 조건부 재정지원 등이 있음
- 시장친화적 정책,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정책, 비 R&D 정책 등 넓은 관점의 정책 도입 필요
- 새로운 정책수단으로 이용지향, 서비스지향, 기술기반 상향식 접근, 기업가

정신 등을 활용할 필요

## □ 지역경쟁력 및 녹색성장을 위한 전략

- “경쟁력 있는 도시와 기후 변화(Competitive Cities and Climate Change)"에 관한 보고서 발표(Lamia Kamal-Chaoui, OECD GOV Head of Urban Development Program)
  -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도시 자체가 아니라 도시형태, 라이프 스타일, 에너지 소비형태임
  - 거시적인 차원에서 상호 경쟁적인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는 미시적(도시적) 차원에서는 경쟁관계가 사라지게 됨
  - 따라서 도시적 차원에서 상호보완적인 성장과 환경을 담보할 수 있는 전략적 계획(strategic planning)이 중요

< 한국, 캐나다, 이태리, 일본, 미국 대표의 토론 >

- 한국 대표는 녹색성장전략, 2025년부터 의무화되는 제로에너지 건물정책, 2018년까지 에너지 30% 절감을 위한 2백만호 그린홈 정책과 철도분담률 증가(8%→22%) 및 신재생에너지 소비 증가(2%→11%) 전망 등을 소개하고 OECD 한국도시정책연구에 반영되길 피력(한국)
- 경제성장과 환경은 상호 연계되어 있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으며, 도시성장을 더욱 유인하면서 지속가능성을 촉진시켜야 함(캐나다)
- 녹색성장을 위한 공공부문의 투자 장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재산세 또는 정부 보조 등을 활용하여 도시팽창 억제(이태리)
- 많은 선진국들이 저탄소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너무 비관적일 필요는 없음(일본)
- 환경이 경제에 미치는 의의에 대한 경제개발청(EDA)의 새로운 해석, 미국 상무부의 기후변화 기금 설치, 지역혁신(Regional Innovation) 법안 제출 등 추진현황 소개(미국)

- “Compact City policies" 제안서 발표(OECD GOV)
  - 압축도시정책연구는 OECD 녹색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압축도시가 온실가스(GHG)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토지이용규제, 건축물 조건, 대

- 중교통 및 재정 인센티브 등의 정책수단을 연구
- '10년 OECD 회원국들의 설문조사(survey)후 보고서가 완성될 예정

## □ 스웨덴 및 이태리(베니스) 국토정책 발표 및 토론

- 스웨덴 국토정책 발표(Catrin Mattsson, 스웨덴 기업에너지통신부)
  - 스웨덴은 인구밀도는 낮으나 스톡홀름 등 도시의 집중이 매우 높은 실정
  - 모든 지역에서 혁신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정부,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간 협업을 통하여 연구를 활성화하고 기업가정신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
  - 지역적 차원에서 교통, 주택 등 부문별 정책을 통합하고 지역정책과 농업정책의 조화 필요
  - 시범지역모델을 타 지역에도 전파하고 규모의 경제 존재시 지자체 통합도 고려
  - EU 구조기금(Structural Funds)과의 일치 및 카운티간 일정표 표준화를 통하여 지역개발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자원의 풀(pool) 정의 개선

### < 한국, 오스트리아, 캐나다 대표의 토론 >

- 스웨덴이 OECD 국가 중 정보통신 투자가 가장 높은 국가임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U-City 추진현황을 소개하고 필요시 추가 자료를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설명(한국)
- 지역개발정책에 있어서 국가적 및 지역적 차원에서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며, 민간, 중소기업, 대학, NGO간 지역적 파트너십과 능력구축(capacity building)이 적절한 개발전략을 수립하는데 긴요(오스트리아)
- 정부조직이 너무 다기화되어 있으면 실업율을 감소시키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캐나다 지역개발청(RDA)같은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며, 적절한 지역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중앙 및 지방의 이해관계자를 모두 수렴해야 함(캐나다)

### ○ 베니스 개발정책 발표

- 베니스 지역은 다원형 저밀도 도시로서 증가하는 교통량과 기반시설낙후

로 인한 도시문제 및 1950년대 이후 도심 인구의 2/3이 감소하는 인구공동화 문제를 안고 있음

- 지형특성상 75%의 지역이 평균해수면 아래에 위치하여 토지이용·수질·환경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며, 물의 관리권도 중앙정부, 지자체 등으로 다기화되어 있음
- 베니스의 경제·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기관내 협력 및 중앙정부, 지방정부간 수직적 협력을 극대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광역 정부(metropolitan government) 신설도 검토

< 독일, 멕시코 대표의 토론 >

- 베니스지역은 밀란과 고속철도 연계성이 떨어지고 베니스 항구는 철도, 도로 등 다른 기반시설과 잘 연계되어 있지 않으므로 종합적인 교통 연계성을 높여야 할 것임(독일)
- 정부 부문간의 협력과 인프라 향상을 통하여 베니스의 국제적인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멕시코)